

# 교실에서 바른 마음 꽃 피워요



수업시간에는 집중하고  
친구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겠어요

II will stay focused in the classroom and  
won't interrupt others.

마리 퀴리(Marie Curie, 1867~1934년)는 폴란드 출신의 여성 과학자로 1903년 노벨물리학상, 1911년 노벨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마리 퀴리는 어려서부터 집중력이 뛰어났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책만 손에 잡으면 꼭 빠져들었습니다. 한 번은 언니들이 책만 읽는 마리를 놀려주려고 계획을 꾸미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마리 뒤에 의자를 쌓아둔 것입니다. 마리가 일어서면 쌓아둔 의자들이 우당탕 소리를 내며 넘어질 테고 마리는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마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들이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며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마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들고 있던 책을 보며 곧장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바보 소리를 들었던 뉴턴도 집중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방금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만 유인력을 발견한 것도 집중력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나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한 줄기 새벽빛이 들어와 점차 밝아지면서 온통 환해질 때까지 잠을 성이 깨지 않았습니다.”

새벽빛이라는 작은 실마리를 갖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마침내는 환한 결론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집중력이 있으면 우리도 작은 것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앉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종이 쭉시고 바깥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시간에 이렇게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가 되고 공부도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집중력을 높이려면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책상 앞에 앉아 책만 펼쳐놓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꼭 빠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는 일도 좋고 취미활동도 좋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쌓다보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도 차츰 늘려갈 수 있습니다.

\* 어린이들에게 집중력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실은 친구와 함께 쓰는 곳이므로  
정리 정돈을 잘하겠어요

My classroom is for my friends and me,  
so I won't make big me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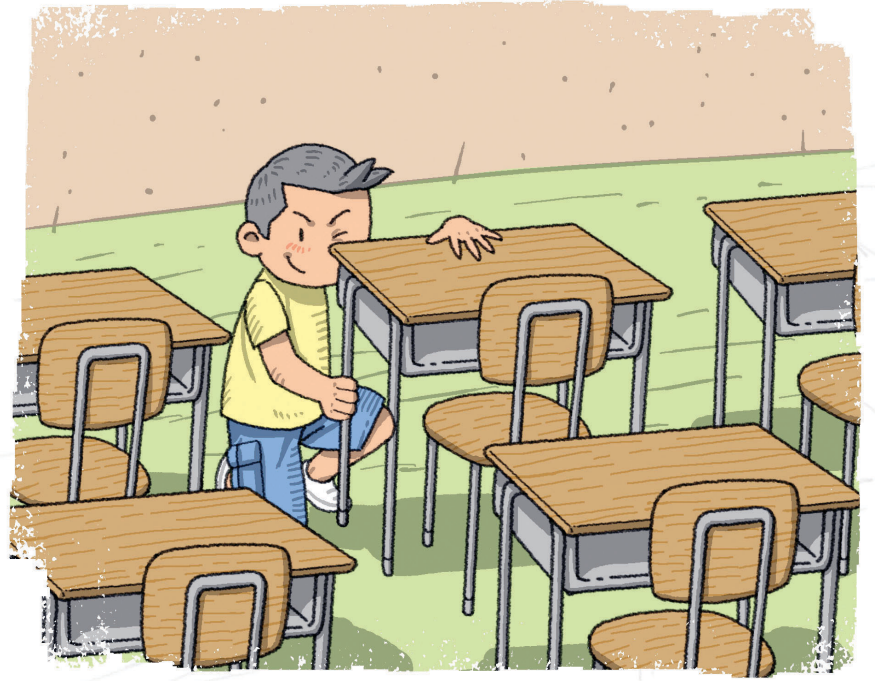
아이젠 하워 (Dwight David Eisenhower, 1890~1969년)는 미국의 34대 대통령(1953~1961년)을 지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연합군의 최고사령관으로 전쟁을 지휘했으며,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휴전협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평소에 정리 정돈을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책상을 네 곳으로 나누어서 당장 버릴 서류, 다른 사람에게 맡길 서류, 급하게 처리할 서류, 천천히 처리해도 되는 서류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 정리하는 방법을 '아이젠하워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젠하워의 법칙대로 정리를 하면 처리 순서를 지킬 수 있었고 깜빡 잊어 버릴 일도 없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1961~) 대통령도 책상에 전화기 한 대와 서류 몇 장만 놓아 둘 정도로 정리 정돈을 잘한다고 합니다.

정리 정돈을 잘하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일을 할 때 순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능력을 배운다고 합니다. 학교 책상 서랍이나 사물함에 학용품을 아무렇게나 놓아두지 말고 정리 정돈을 잘하기 바랍니다. 특히 함께 쓰는 물건은 꼭 제 자리에 정리해야 합니다. 정해진 자리에 놓아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써야 할 때 불편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은 정리 정돈을 잘하는 편인가요?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 정리 정돈을 잘 못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정리 정돈을 잘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책상의 입장에서 물건을 함부로 쓰는 사람에게 충고를 해 보세요.  
\* 학교의 물건을 낭비하거나 함부로 쓰면 무엇이 나쁠까요?  
\* 친구들이 공동의 물건을 아껴 쓸 수 있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모두가 함께 쓰는 학교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어요

I will be gentle on school supplies because  
everyone shares them.

천하의 심술쟁이에 욕심쟁이인 놀부는 부자가 된 동생네 집에 갔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물건을 발견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화초장, 문쪽에 화초 무늬를 곱게 붙인 장롱이었습니다.

“흥부야, 저기에 뭐가 들었냐?”  
“금은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형님.”  
금은보화 소리에 놀부의 욕심보가 재빨리 반응합니다.  
“저건 내가 가져가야겠다.”  
“드려야죠, 형님. 제가 내일 하인을 시켜 보낼 테니 열려주세요.”  
그 말을 끝이들을 놀부가 아니었습니다. 대뜸 소리부터 지릅니다.  
“이런 도적놈을 봤나. 화초장에 든 금은보화는 빼버리고 겹테기만 보내려고 그러지? 흥악한 놈 같으니라고, 썩 내 나라! 내가 지고 갈란다.”

뻔뻔스러운 놀부입니다. 이런 놀부 태도를 일러서 사람들은 '네 것도 내 것 이고, 내 것은 원래 내 것'이라며 비웃습니다.

우리는 놀부와 달라서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네 것은 탐내지 않고 내 것은 아깝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내 것'이기도 하고 '내 것'이기도 한 '우리의 것'이 아주 많습니다. 책상, 의자, 사물함부터 시작해 텔레비전, 컴퓨터, 심지어 화장실의 수도꼭지까지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것'은 소중하게 아끼면서 우리의 것은 함부로 대합니다. 학교 물건의 절반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고장이 나면 불편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학교에 있는 우리의 물건을 내 것만큼 아껴주기를 바랍니다. <끝>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 華嚴經 論講 (화엄경 논강)

청량국사의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가 지은 진귀론으로 논강함

- ◆ 강의용 화엄경책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강의용 출판
  - ◆ 강의용 사경집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사경집 출판
  - ◆ 2016년 2월 출판예정 진귀수행 화두집(平溫) 출판
- 책 구입은 입금후 1899-9532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平溫 眞歸의 행장

대다수 불자나 종교인 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理解가 불가능하고 믿기 힘든 不思議 수행자로, 비영리단체 華嚴經 講院의 講主로 재임하면서, 방대하고도 심오한 깨달음의 경계를 設한 80권 화엄경을 대본없이 즉설로 청량국사의 청량소와 통현장자의 화엄론과 스스로 지은 眞歸論으로 논강하며 또한 팔만대장경을 즉문 즉설하는 희유한 괴짜 修行者 이다.

2015년 현재 화엄경 眞歸論을 500p×100권 분량으로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80권 화엄경 주석서를 80화엄 한자원문 + 80권 한글완역 + 80화엄 영어완역 + 진귀론 한글주석 + 진귀론 영어주석으로 집필중이며, 競爭과 政爭, 論爭, 鬪爭, 戰爭, 등으로 온 우주가 갈등하고 화택속인 말법시대에 超국가 超민족 超종교 超종파 超반연 의 화두인 <평온>을 강론하고 힐링하는 財團法人(평온센타-보림)을 건립 추진중 이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 강원

문의 1899-9532

##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은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 신성불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